

“선교는 기회로부터” 제1회 선교박람회 성황

55개 선교부스 마련, 평신도들에게 선교사 지원 동기 부여



제 1회 선교박람회가 KWMO 주관, GMAN 주최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제 1회 선교박람회가 5일부터 7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소중교회 선교운동(소형교회+중형교회+한인교회) 표어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30개국 약 100명의 선교사가 참가해서 55개의 선교부스를 마련했다. 방문 성도들은 선교부스를 방문하면서 선교사역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황금기 선교사(은퇴한 분들)로, 전문인 선교사로 지원하도록 동기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주최측은 준비했다.
 방문 성도들은 각 부스를 방문하면서 각 나라의 선교사들로부터 다양한 경험과 기도제목 등을 전해 듣는 등 각 선교지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주최 측은 쌀로 예수님 얼굴을 그리며 자신의 속에 있는 문제를 보게 하는 ‘쌀 테라피’, 커피 점토로 ‘십자가 만들기’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생각하는 ‘커피 점토 테라피’, 선교부스 여행 중 레고로 십자가를 만들어보며 선교적 질문

을 하게 되는 ‘레고 테라피’ 등 테라피 체험 부스를 마련하기도 했다.
 박람회 준비위원장인 김정환 선교사는 “미국에 선교 동원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중소형 교회들이 활발하게 세계 선교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이 박람회를 기점으로 전문인 선교사, 그리고 황금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나예스더 선교사는 “이번 모임에서 예배와 간증이 너무 은혜로워서 많은 위로와 치유가 있었다. 눈에 보이는 실적과 방법론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 은혜를 나눠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지역을 소개하고 많은 분들과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고 격려해주는 분들로 인해 힘을 받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태국의 이순영 선교사는 “태국에 간지 47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언어

를 배울 때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내가 태국에 들어갔을 때, 오랫동안 태국에서 선교했던 미국 선교사가 본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의 태국이 실력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다”며 “태국 현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동안 현지인들이 변화되어 아들이교회, 그리고 중순자 교회를 태국 현지에서 낳게 됐다. 태국에서는 그 동안 대형집회를 하지 않았었는데, 내년 1월에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와서 대형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제 태국에도 부흥이 오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교박람회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열렸으며, 성도들은 계속해서 박람회를 방문해 선교사들과 활발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행사는 KWMO(한인세계선교회운동) 주관, SON MINISTRIES와 GMAN 주최로 열렸다.
 토마스 맹 기자

영 김, 한인 여성 최초로 연방 하원의원 당선 ‘쾌거’

98년 김창준 전 의원 은퇴 후 20년만... “한미 양국의 다리 역할” 강조



영 김 후보 (영 김 선거페이지)

한인 1.5세인 공화당 영 김 후보가 마침내 연방의회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2018 중간선거(Midterm Election)가 6일 실시된 가운데 영 김 후보(공화)가 한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연방 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이는 1998년 김창준 전 연방 하원의원 퇴임 이후 20년 만에 한인 출신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하게 되는 것.
 7일 오전 9시 57분 현재 영 김 후보가 7만6956표(51.3%)를 기록해 7만3077표(48.7%)에 머문 길 시스네로스 후보(민주)를 2.6% 앞서고 당선이 확정됐다.(개표율 100%)
 영 김 후보는 6일 투표 종료 후 STC센터에서 열린 빅토리 파티에서 “지금까지 응원해 준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한인 정치력 신장과 한미 양국의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1962년 인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13세 때 가족과 괌으로 이주했다. 괌에서 중교를 다녔으며, 이후 캘리포니아주로 이사해 서던캘

리포니아대학(USC)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부터 지한파인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으로 21년간 일했으며, 2014년에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선거에서 현역 샤론 쿼크 실바 의원을 꺾고 당선돼 최초의 한국계 여성 주의원으로서 2년 동안 활동했다.
 연방 하원 39지구는 공화, 민주당의 최대 격전지였다. 이 지구구는 LA와 옐로스, 샌버나디노 등 3개 카운티에 걸쳐 있으며,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풀러튼과 부에나 파크, 브레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예비선거에서는 영 김 후보가 3만 19표를 얻었고, 로토 당첨자로 알려진 길 시스네로스(민주)는 2만 7469표를 기록해 1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한편, 현재까지 중간선거 개표결과 상원은 공화당 51석, 민주당 46석을 얻어 공화당이 과반적인 51석을 고수하면서 다수당을 수성했다. 하원은 민주당이 220석, 공화당 196석으로 민주당이 과반적인 218석을 넘으며 8년만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 (562) 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에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미주장신대 41주년 후원의밤 열고 헌신 요청



“손 잡고 함께 가세”란 주제로 진행된 토크쇼에는 두명의 교수와 세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 상명. 이하 미주장신대)가 개교 41 주년을 맞아 후원의 밤을 5일 오후 6시에 홀러튼장로교회에서 개최했다. 미주장신대는 이날 뜨거운 찬양과 기도 그리고 토크쇼로 행사를 다채롭게 이끌며 후원헌금을 요청했다. 환영인사를 한 김루빈 목사(학생처장)는 “미주 전역과 전세계에서 수업을 듣고있는 학생들이 주의 나라 확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손 잡고 함께 가세”란 주제로 진행된 토크쇼에서는 두 명의 교수와 세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김용환 교수(크리스천상담심리학 디렉터)는 토크쇼에서 “산타페 상담소를 만

들고 있다. 학교에 오기 전에는 연구와 학생들을 가르치면 다 되는줄 알았는데,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사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상담소를 개설해서 지역 사회에 필요한 상담과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미주장신대의 장점이라면 경건과 학문 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 신학교에 10년을 다녀서 학문을 통해 배움을 얻었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경건의 훈련이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 이 두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미주장신대를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자분들은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며, 달란트도 많은 것을 보게 된다. 얼마전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많은 목회자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후원의밤에서는 미주장신대 연혁 및 홍보 영상 시청 시간과 콘서트 파이어의 찬양이 있었다. 한편, 미주장신대는 지난 6월 학위 인가 기관 중 하나인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Accredited Member)으로 인준된 바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우리의 기쁨 되신 예수그리스도”

기쁜우리교회 가을 말씀잔치



기쁜우리교회 가을 말씀잔치에 이동원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글렌데일에 위치한 기쁜우리교회는 지구촌교회 원로인 이동원 목사를 초청해 “우리의 기쁨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가을 말씀잔치를 가졌다.

그는 “빌립보서 각장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면서 “세상의 기쁨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소유하자”고 권면했다. 지난 3일 오전 토요집회에서 빌립보서 2장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모범”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동원 목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자”고 권면했다. 이 목사는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는 ‘기쁨’인데 빌 2장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기쁨은 우리 삶에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했다.

다”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은 5절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우리가 평생에 본받고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교회 안에 갈등은 내가 상대방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자존심 때문이다. 나라고 너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자존심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이신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사람이 되어 종이 되셔서 종의 마음으로 섬김 자기 낮춤과 자기 비움의 삶을 살자”고 말했다. 이 목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십자가의 비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 우리 안에 모든 갈등과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했다.

“계시록, 환란속에서 승리하라 주신 복된 소식”



겨자씨 성경연구원 주최로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열렸다.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앙의 뿌리둔 겨자씨 성경연구원(원장 김선웅 목사) 주최로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열렸다. 강사는 소그룹 성경교재인 '갈라디아서-오직하나의복음', '로마서-온 세상을 향한 주 예

수의 복음', 등을 펴내고, 최근 '요한계시록-속히 오실 주 예수의 복음'을 집필한 김선웅 목사가 나섰다.

지난 5일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남가주 목회자와 평신도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루 일정으로 열렸다.

김선웅 목사는 “계시록은 묵시로 된 책이다. 어디까지가 상징이며, 어떤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문제, 천년왕국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입장으로 혼란한 틈을 타고 간

교한 이단들이 자위적으로 해석해 수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종말론의 해석이 난해하나 ‘장르’, ‘구조’, ‘성취연대’, ‘천년왕국’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시록은 다른 책들처럼 단일한 문학적 형태가 아닌 세가지 장르(서신,예언,묵시)가 섞여 있다. 서신은 어렵지 않지만 4-22장에 나온 ‘예언’과 ‘묵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해석이 어렵다. 특히 ‘묵시’는 상징언어로 초월적 계시를 묘사한다. 그 말씀의 실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계시록은 예수 그

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성취와 결론의 책으로 난해하고 복잡하지 않다. 많이 배우지 못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읽은 책이다. 계시록이 어렵다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계시록을 통해 두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주어야 한다. 어떤 환란에서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주신 복된 소식을 잊지말자”고 강조했다.

한편,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평신도 계시록 세미나는 11월 10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나침반교회에서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문의) 714.616.6644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평화의 시가 통일꽃길 되리라

| 소강석 지음 |

새벽 성루에서 조국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였던 허박국처럼 민족의 평화통일을 갈망하며 절규하였던 가난한 신학생 광야의 영성과 현대적 지성, 예술적 감성의 조화를 이루며 신도시 대형교회 부흥을 이룬 후 개교회 성장을 넘어 사회적 기독교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로서 평화통일의 봄을 외쳤던 목회자 소강석목사, 그가 시로 써 내려간 화해와 용서, 평화의 여정이 펼쳐진다.

304면 / 13,000원

소강석

평화의 시가 통일꽃길 되리라

영혼의 진주를 사세요 320면 / 13,000원

예수 마리아가 되라 320면 / 13,000원

새롭게 하소서 236면 / 13,000원

미래교회 서바이벌 미래교회 272면 / 12,000원

클란츨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클란츨판사 • 홈페이지: www.kumran.co.kr • 서울 중구 이회동 184-3 • TEL : 745-1007(내)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춘원 이광수의 교회 비판

초기 한국 교회 선교 현장을 살펴본 여러 인사들은 단시일 내에 급속하게 성장한 우리 교회에 대해 듣기 민망할 정도의 찬사를 들려주었다. 특히 1907년 대부흥운동을 전후한 한국 교회의 성장은 찬사를 받기에 충분할 만큼 비약적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서서히 들려오고 있었다. 밖으로부터는 일제의 탄압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던 교회가 이제 우리 민족 안에서 나오는 비판의 소리에 또다시 자성의 기회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사의 자격을 주어 만인의 정신을 지도하는 자가 되니 그들이 무식할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넷째, 미신적이다.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인에게 아프리카의 미개한 민족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우리에게 심오한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고래의 미신을 이용하여 천당지옥설과 사후부활, 기도만능설 같은 것으로 몽매한 민중을 죄악에서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선교사를 탓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아프리카인들처럼 보인 것이 분하다.



이광수는 결론적으로, “현시 조선 교회는 전제적, 계급적이며, 야소교의 근본 특징인 자유, 평등의 사상을 몰각하였으며 종교의 신앙을 인생의 전제로 여겨 신자, 비신자의 구별을 선인, 악인의 구별같이 하고……교역자가 문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다수한 교인을 미신으로 이끌어 문명의 발전을 저해하여 미신적 신앙을 고집하여 문명적 종교의 사명을 감당치 못한다.”고 질타하였다.

또한 이광수는 1918년 9월 「매일신보」에 다시 교회에 대한 비판을 가했는데, 그 내용은 30년의 역사와 30만의 교도를 가진 조선 야소교회에서는 아직 신앙고백이나

교리해석 한 권을 [생] 산하지 못했다고 꼬집으면서 자기 교회 역사책 한 권도 저술치 못한 교회를 비난하였다.

이광수가 기독교에 입교했거나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천명한 일은 없다. 그러나 그가 오산학교에 교사로 있을 때, 기독교 정신으로 이 학교를 건립하고 지도했던 남강 이승훈 장로와 교장 조만식 장로 같은 이에게 강한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다. 특히 그의 문학세계는 톨스토이의 기독교적 휴머니즘에 영향을 받은 바 큰 것을 그의 작품, 「무정」, 「재생」, 「흙」, 「유정」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기독교에 깊은 이해를 가졌으리라 짐작은 가지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교회 밖의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의 비평은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한 시대의 지성인이 교회에 대해 비판하는 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는 항상 교회를 향해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판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자성의 자세를 가져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광수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향해 비판한 내용이 그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어떻게 한국교회는 100년 전이나 오늘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광수가 위에 지적한 네 가지 가운데 단 하나라도 시정된 것이 있는가? 교회는 여전히 계급적이고, 교회 지상주의, 목사, 전도사의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는 생각, 교역자들의 무지, 마지막 미신적이라 지적한 것도 여전히 교인들 중에 잠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요컨대 여전히 교회는 별로 변함이 없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요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어 있다. 대형 교회의 출현으로 생겨나는 문제들, 즉 소위 세습, 불투명한 재정 운영,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오만한 자세, 주변에 있는 소형 교회에 대한 배려 부족, 교회 주변에 사는 불신자들에게 대한 무관심, 잊어버릴 만 하면 터지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스캔들, 교회 내의 갈등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 등등 많은 문제가 노정

LA할렐루야교회, 이병호 담임목사 취임

류종길 원로목사 추대



LA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LA할렐루야교회가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4일 오후 4시에 거행했다.

이날 원로목사 추대식에서 류종길 목사의 아들인 류명욱 목사가 대신하여 인사를 전했다. 류명욱 목사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은혜, 감사, 구원, 동행 네가지 키워드가 떠올랐다. 아버지는 제게 인생이 두번 주어졌어도 따라갈 수 없는 업적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까지 농담이라도 자기 자랑을 얘기하신 적이 없다. 이것이 은혜이다”라며 “또 모든 일에 감사로 마무리 하셨다. 목사로서 억울한 일을 마주치더라도 그 끝은 언제나 감사였다. 또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신다. 이제 주 안에서 더욱 깊은 주의 말씀 목상을 통해, 은혜, 감사, 동행,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구원으로 이뤄지기까지 중보하며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병호 목사는 LA할렐루야교회 새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 이목사는 미주한빛성결교회에서 10년간 부목사로 사역한 바 있다. 교회는 “이병호 목사는 지난 10여년간 한빛성결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겼었다. 이번에 담임 목회자로 모시게 되어

큰 기쁨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1부 감사예배에서 이상혁 목사가 집례를, 김종호 목사(예향선교회)가 ‘아름다운 마무리, 힘찬 새출발’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2부 담임목사 취임식에서는 김종호 목사가 집례를, 차광일 목사(한빛교회)가 격려사를, 김희창 목사(말씀새로움교회)가 축사를 했다. 3부 원로목사 추대식에서는 이병호 목사가 집례를, 최경환 목사(미주성결교회 총회장)가 축사를, 김응구 목사(성광회 회장)가 축도를 했다.

한편, 류종길 목사와 사모는 인사 말씀을 전하는 것을 대신해서, 축가를 불러 은혜를 더했다. 류종길 목사는 지난 2011년 2월에 담임목사로 취임해 이 교회에서 8년여 동안 목회를 했다.

류종길 목사는 서울신학대학, 건국대 철학과,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미주 성결교 신학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북부산교회 개척 및 시무 12년, 산호세중앙교회 2년, 김해제일교회 10년 시무했다. 한국에서 교계활동은 영남지역 바목협 회장, 김해기독교연합회장,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세계복음화문제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토마스 멩기자

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이다. 또한 인간들의 모임이다. 인간들의 모임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인간의 본디 악성을 갖고 있다. 악마는 이 인간의 악성을 이용하여 끝없는 문제를 교회에 내어서 일으키게 한다.

2천년 교회 역사에 어느 한 시대라도 문제가 없는 때는 없었다. 크고 작은 문제에서 죽고 죽이는 전

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악이 존재해 왔다. 문제투성이 교회에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 죄악 된 인간들 사이에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그 맥을 이어 오고 있다.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개선해야 하는 당면 문제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만으로 해결 될 수 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를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알려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철저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푸르기 탐구생활 이상호PD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아이비 유학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Easter SUNDAY 예수, 부활하셨네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다민족 다문화의 나라 미국을 향한 하나님 마음

필자가 사는 동네에 한 도너츠 샵이 있다. 베트남 가족들이 운영한다. 그 샵의 계산대 밑쪽에는 불상과 향 통이 있다. 그들 전통적 우상단지이다. 어느 날인가부터 그 바로 위쪽에 캐쉬어 박스의 옆쪽에 십자가 스탠드가 놓여 있다. 아래는 우상단지, 위에는 십자가상이 놓인 것에 마음이 쓰였다. 한번은 캐쉬어를 하는 대학 다니는 딸에게 물었다. 어떻게 십자가가 여기 있는냐고? 딸이 대답했다. 학교 친구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아버지는 못마땅해 하시지만 강력히 반대는 안하신다고. 십자가 스탠드도 친구가 선물했는데 캐쉬대 위에 두는 것을 아버지가 반대하시지 않는다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가족은 보트 피플이었다. 목숨을 걸고 찾아온 미국 땅에서 그 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나를 믿고 사는 참 믿음 생활을 못하고 사는 가짜 크리스천이 많은 것이 문제일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능력이 있다. 세상을 선하게 이끌 수 있는 능력, 세속의 유혹을 물리 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문화와 종교 가운데서도 누가 참 하나님이고 세상의 주관자이신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 마치 다니엘에게처럼, 엘리야에게처럼, 에스더에게처럼, 베드로와 바울에게처럼 세상도 감당하지 못했던 신앙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믿는다. 필자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곳도 '선교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 이 땅에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눈을 돌려 필자가 사는 사우스베이 지역을 살펴보면 이 지역도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져 산다. 일본인들, 베트남 사람들, 중국인과 대만 사람들, 그리고 남미사람들과 아프리카인들.

어느새 시리아 난민들도 보인다. 인도계 사람들, 알미니안들, 터키인들, 이란 사람들 등 다양한 이웃이 우리 주변에서 같이 살아간다. 필자는 그들이 어느 종교를 가지고 왔건, 어느 문화로 살아가건 그들의 모든 삶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 둘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들이 생기게 되는 것도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다. 필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 그 하나님이 미국을 다민족 나라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한 자녀일 것이다. 그들이 다 한 백성으로 보실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삶이라면 두려워 할 것이 없다. 크리스천이라 하면서 살아계신 하

나를 믿고 사는 참 믿음 생활을 못하고 사는 가짜 크리스천이 많은 것이 문제일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능력이 있다. 세상을 선하게 이끌 수 있는 능력, 세속의 유혹을 물리 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문화와 종교 가운데서도 누가 참 하나님이고 세상의 주관자이신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 마치 다니엘에게처럼, 엘리야에게처럼, 에스더에게처럼, 베드로와 바울에게처럼 세상도 감당하지 못했던 신앙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믿는다. 필자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곳도 '선교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언제부턴가 '글로벌 선교시대'란 말이 생겼다.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이다. 물론 열방의 먼 나라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는 것은 더 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서 이웃에 사는 다민족과 친구 되는 것도 소중하다.

필자의 교회 EM 청년들은 "그들의 친구가 되자"라는 표어를 세웠다. 기도할 때마다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심사 기도한다.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의 친구가 되기 위해 그래서 다민족 교회 공동체의 꿈을 갖는 글로벌 선교의 주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지오반니 피코 행복론-다시 읽는 '르네상스 행복론'

르네상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오반니 피코를 잘 압니다. 가장 르네상스 시대 사람답게 살았던 사람이 지오반니 피코(Giovanni Pico)입니다. '행복의 역사'라는 책을 쓴 대린 막마흔 박사는 "만약에 르네상스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지오반니 피코야말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지오반니 피코는 철저하게 르네상스의 시대정신을 품고 살았던 르네상스 지성인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지오반니 피코는 놀랄 만큼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지오반니 피코가 24세 되던 해에 펴낸 "명제집(Conclusioness)"에서 당대 사상들을 종합하여 900개의 논제를 정리했습니다. 고대철학과 신학의 방대한 논제들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방대한 지식을 종합 정리한 수작(秀作)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박식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지오반니 피코가 남긴 많은 작품 가운데 "인간 존엄성에 대하여(On the Dignity of Man)"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실 이글은 연설문입니다. 이글은 후대 학자들이 '르네상스 선언'이라고 부르는데 이견(異見)이 없습니다. 그 만큼 르네상스 정신을 잘 표현한 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를 재해석하고 이 글에 나타난 지오반니 피코의 행복론 즉 르네상스의 행복론을 정리합니다. 연설문이니 명명문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인생을 경탄하라! 지오반니 피코는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현재의 인생을 경탄하라고 권합니다. 지오반니 피코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를 통해서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인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장점은 '불멸하는 영혼'을 소유한 것입니다. 인간들의 가장 큰 장점인 불멸의 영혼을 잘 활용하는 길이 영원을 지향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영원을 지향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물리치고 천상적인 것을 향해서 분투하는 삶입니다. 지오반니 피코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삶이 영원을 지향하는 삶이요 이 삶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행복한 삶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순종하라! 지오반니 피코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는 인류 불행의 출발을 에덴동산에서 아담의 불순종에서 찾습니다. 그의 다른 작품 "창세기 6일에 관한 7종의 서술"에서 에덴에서 원죄 때문에 인간의 자유와 행복이 박탈당했다는 것을 아프게 지적합니다.

피코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따르기 보다는 악마를 따랐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그의 후손인 우리들이 불행의 늪에 빠진 것을 지적합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불행에 빠진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행복의 길이라는 가르침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지오반니 피코를 르네상스 틀 안에서만 이해하면 그에게서 인본주의적인 행복만 보입니다. 그러나 피코를 신앙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성숙한 성도의 행복이 보입니다. 그의 대표작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를 신학적으로 분석하며 다시 읽으면 고상하고 품위 있는 르네상스 지성인의 영적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탄, 영원, 순종, 이 세 단어가 르네상스의 피코가 전하는 행복의 키워드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를 에드워즈에게 배워 부흥하자"

에드워즈아카데미 엘레이(대표 광부환 목사) 주최로 갈보리선교회(심상은 목사)에서 제3차 에드워즈 세미나가 5일(월), 6일(화)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렸다. 엘레이 에드워즈센터 연구원, 에드워즈아카데미 및 버지니아 크리스천 대학 객원교수인 정부홍 박사가 이날 강사로 나섰다. 정부홍 박사는 '지유의지'의 예증들 및 현실 적응들 및 끼친 영향이란 주제로 한 강연에서, "에드워즈가 스토다트 외할아버지께 들은 영적부흥 사건들로, 5차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영혼들을 추수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큰 사건들이었다"라면서, "빌리그래함 목



정부홍 박사

사가 처음한 대중설교가 히트를 친 것은 LA 다운타운에서 했을 때였다. 그때 빌리그래함이 강조한 것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였다. 긴박성 있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바로 지옥에 갈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지옥을 강조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 교회가 죽어있는 것은, 죽어있는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성령이 임하시기 위하여

사도행전 10:24~4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사도행전 10:24~46

이사야 7:14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택하신 자기백성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인생은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보장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생활을 점검해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지시를 거역하고 육신이 원하는 세상조건과 허욕을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을 일삼고 잘못 살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10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했습니다.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받는 사람은 복되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지역이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인 고넬료가 그곳에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로마사람입니다. 그런데 점령지역은 이스라엘과 가장 인접한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가이사라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고넬료는 점령군 파견대장입니다. 그래도 망한 나라의 하나님을 상당히 흠모하고 연모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각, 말, 행동으로 길들여져야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적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서 되는 일도 없고 상당히 먹고 살기가 힘든 형편이었는데, 로마군대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보내주는 고급스럽고 넉넉한 식량과 옷가지로 험뎠고 굶주리는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애쓰는 노력과 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험뎠고 굶주릴 때에 옷가지와 좋은 음식으로 나누어 먹이는 사랑의 보살핌을 다했으며 하나님 앞에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정해 놓은 기도시간인 제 구시(지금의 오후3시)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주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일러주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고 구제하며 경건한 생활

을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내가 사람을 읍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 그가 내 말을 네게 전해 줄 것이다. 그는 바닷가 피장(가죽을 가지고 생활 도구를 만드는 사람)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느니라”고 합니다. 읍바는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인 지중해 서해안에 있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는 즉시 자기 수하중 경건한 사람들을 보내어 시몬을 모셔오게 합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제 육 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를 때어 땅에 드리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합니다.

이것을 ‘엑스타시스(Ekstasis)’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관적 계시, 즉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가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장면은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 광경, 출현, 환상’을 의미합니다. 큰 보자기의 네 귀통이를 때었다는 것은 동서남북 세상 전체를 내포하는 의미가 있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나이대(행10:4)”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있을 후에 이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의 혈통에 유대인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어도 안되고 결혼을 해도 안되며 서로 어울릴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오로지 자기 백성만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의식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전개되는 시발점에 선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이 구원시키실 대상이 유대인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그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정해지는 법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상당히 궁급해 할 때 문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로마사람들이 그를 찾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었느니라(행10:19-20)”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두 사람인데,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게 하신것은 베드로를 모셔다가 고넬료와 함께 있는 택하신 사람들로 성령을 받게 하시어서 그들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두 사람을 만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를 묻습니다. 22절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고 답합니다. 이들은 로마군대의 군인들로 그들이 보기에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나이 들어 볼품 없어 보였을 것이며 그의 영적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하대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는 이방인과 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날의 환상을 본 이후로 선민사상이 허물어진 베드로는 이 두 사람을 청하여 잠을 자고는 이튿날 아침 읍바에서 은혜 받은 여섯 명과 함께(행11:12)가이사라로 떠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갔을 때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그와 가까운 사람들, 자기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마치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세로 벌떡 일어나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큰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하는 말이 나도 사람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말라하시기로 당신의 초청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슨 일로 여기로 불렀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고넬료는 자신이 본 환

상과 하나님의 지시하심대로 했음을 말하며 환영의 말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34절이하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베드로는 ‘엑스타시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합니다.

36절에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답을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셨다는 의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37-38절에서 두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남의 섭리는 반드시 영적 구원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기 위하여 성령 받은 목자와 죄인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인도하심을 받고 목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깨어지는 회개역사가 없다고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고 지옥갈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참으로 불행한 곳입니다. 마가복음 9:48-49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이 음부보다도 더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회개하여 성령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불려주신 것입니다.

교회마다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를 통하여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들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심이 있는 사람은 그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맞아들여서 이제의 육체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영혼이 하늘소망을 목적으로 살아야겠다고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생복락이라는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브 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0TH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K-9 학년 Enrolling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37% 미세혈관 합병증	21% 당뇨병 관련사망	14% 심장마비	12% 뇌졸중
------------------------	-----------------	-----------------	-------------	------------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김남수 목사

김남수 목사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시에틀 기독교회연합회(회장 천우석 목사)가 주최한 가을부흥회가 지난 26일부터 27까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에서 강사 김남수 목사(뉴욕프라이미스교회 원로)를 강사로 열렸다.

김남수 목사는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주제로 “사랑에서 생명으로”(요한복음 5:17-24), 둘째날은 “무엇이든지 구하라”(요한복음 14:12-14)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참된 의미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을 설교하며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복음 전파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남수 목사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것인데,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그 권세가 영원한 것이고, 무궁한 것으로 교회는 이 자녀가 되는 특권을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너무 하지 말라는 금기 사항을 가르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의 아들도 목사의 아들이지만 오랜 시간 방황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삼가는 것만 가르친 것이 아이를 더 방황으로 이끌었고, 그 일이 가장 후회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에게 너무

엄격하고 금지된 신앙을 처음부터 가르치면 인간이 가진 고유의 가치가 하락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바라보고 자녀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가르치게 되면 자녀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또 “교회가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노예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닌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며 “성경의 본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평안과 안식을 소망하며,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이 광야에서 잠시 지내다가 천국의 본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삼가야 하고, 교인들 역시 성경에 없는 것을 목회자에게 요구함으로 목회자를 어렵게 하고 눈멀게 하는 일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남수 목사는 뉴욕프라이미스교회에서 40년간 목회했고, A/G 미분부총회 행정위원, A/G 한국총회 증경총회장, Window Movement 총재를 역임하고 있다.

플 원 기자

20년 전 접어야 했던 찬양의 꿈, 많은 교회들과 함께 예수 이름만 찬양하고 파



김재훈 집사

정확히 20년 전이다. 1998년 당시, 내 노라하는 CCM 음반기획사인 예문기획 찬양대회를 통해 데뷔한 뒤, 전체 창작곡으로 ‘내 삶의 고백’이라는 음반을 발매한 싱어송라이터 김재훈. 1집에 대한 반응이 좋아 2집을 준비하던 중 여러가지 상황으로 꿈을 접을 수밖에 없던 그 청년이 20년 만에 마음 속 깊이 간직했던 평생의 꿈과 소망을 다시 한번 펼쳐냈다. 예배음반 ‘프러클레임 워십(Proclaim Worship) 예수’ 1집이 발매된 것이다.

반안곡 위주의 예배음악 시장에서 ‘창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앨범 전체를 순수 창작곡으로 꽉 채워넣은 ‘프러클레임 워십’은 그의 인생의 고백이자 교회들을 향한 도전이기도 하다. 꼭 훌륭한 찬양팀이 아니더라도, 꼭 갖춰진 악기가 없더라도 예배의 현장에서 누구나 함께 따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찬양할 수 있게 하는 이번 앨범은 그런 의미에서 국내 예배음악에 새로운 활력과 바람을 일으키길 바라는 한 신앙인의 소망도 엿볼 수 있다. 앨범을 접한 이들의 요청으로 반주음악(MR) 앨범만 따로 나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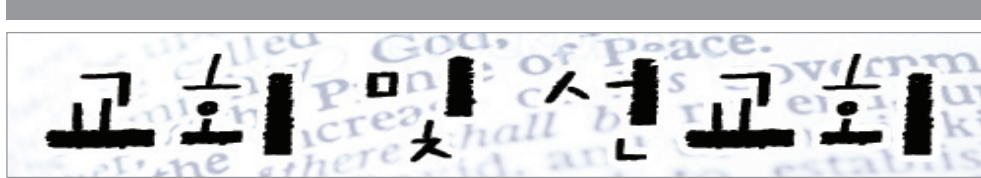
사실 김재훈 집사의 음악적 재능은 CCM쪽보다 대중음악 쪽에서 먼저 알려졌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 중창단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다. 한번은 한 유력 일간지 27주년 기념행사 중창단으로 초청받아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중 그가 작곡한 곡을 들은 몇몇 가수들이 대학가면 꼭 찾아오라

고 했을 정도. 그때부터 가수의 꿈을 안고 네 곳의 대형 레코드사를 두드렸고 서라벌레코드사를 통해 1991년 이승한 매니저이자 이재민의 ‘골목길’을 작곡한 윤태영 씨를 통해 6개월 간 작곡, 작사 트레이닝을 받으며 음반을 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가운데 있지 않았다. 일주 준비가 되어가던 중 ‘서태지와 아이들’의 화려한 등장으로 다른 모든 가수들은 앨범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도 대중가수 공연 스태프로 활동하며 음악계를 쉬어 떠나지 못한 것이다. 그가 일하는 치기공 사무실에서 김재훈 집사는 기적과 같은 앨범의 작업 과정을 시종 유쾌하지만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진지하게 풀어나갔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열정을 못 버린다. 평생의 꿈과 소망, 내가 드릴 수 있는 은사인데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마음은 계속 있었다. 다른 일을 하면서 꾸준히 작사, 작곡했지만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기에 평생 제대로 된 음반을 내고 싶었다. 지난 여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져 이번 앨범을 낼 수 있었다”고 고백한 그는 “특별히 백세대 실용음악과 보컬교수이며 한국교회음악원 실용음악과 지성진 교수가 전체 프로듀서를 맡아줬고, 피쳐링으로도 힘을 실었다. 또 한국교회음악원 교수들, 메인리더를 맡은 어노인팅의 강동균 목사님, 신승희, 김은현, 이지은 등 내 노라하는 CCM 가수들 그리고 연주자들이 발런티어로 참여해줬다. 녹음실도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게 정말 말이 안되는 일이다. 그저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여명의 보컬이 참여해 음악적으로나 음색적으로 풍성한 감동을 전해주는 ‘프러클레임 워십’ 1집은 이름 그대로 예배음악(회중찬양)에 기반을 두고 작사, 작곡했으며, ‘예수’라는 큰 주제를 두고 ‘예수’와 ‘십자가’를 찬양했다. 한 두번 들 어보면 누구나 쉽게 따라부를 수 있고, 따라부르고 싶은 앨범이다.

앤더슨 김 기자



<p>LA 지역</p> <p>주일에 오전 11:00 주일에 오후 2: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p> <p>김성식 담임목사</p> <p>LA백송교회 역성학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행통의 속복을 받자</p> <p>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p>	<p>주일에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일 예배와 삼 공부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8:00</p> <p>씨니킴 담임목사</p> <p>LA씨티교회</p> <p>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에 - 버클랜드(7)와 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요일 -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복약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승천하는 교회</p> <p>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p> <p>장태원 담임목사</p> <p>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p> <p>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p> <p>강진웅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1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p>	<p>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p> <p>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김문수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08:30 영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p> <p>지용덕 담임목사</p> <p>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p> <p>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p>	<p>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7: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청년부 예배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 오후 7:30 교회학교 오전 9:00</p> <p>김경렬 담임목사</p> <p>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s.org</p>
<p>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토) 오후 1:00 유년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정병노 담임목사</p> <p>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p> <p>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380-7240 Email: j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건너 있습니다)</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0: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년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중고등부 EM 오전 12:15</p> <p>정세훈 담임목사</p> <p>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p> <p>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sehan.com</p>
<p>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아부 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p> <p>정인호 담임목사</p> <p>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p> <p>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p>	<p>1부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 대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치, 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p> <p>곽건섭 담임목사</p> <p>예은장로교회</p> <p>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p>
<p>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후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p> <p>박은중 담임목사</p> <p>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p> <p>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p>	<p>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p> <p>김종호 담임목사</p> <p>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p> <p>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p>
<p>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액예배(말린예배) (스케바슬) 오전 11:0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하는 교회 깊은 믿음, 마음, 꿈, 열매</p> <p>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디오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디오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요일새벽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6: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 유아,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p> <p>김 신 담임목사</p> <p>주향교회 주님을 향한, 주님의 향기</p> <p>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힘쓰고, 소신, 초 정심의 힘, 바른교회관의 힘</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부 유초등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김은목 담임목사</p> <p>평화교회 신뢰와 진정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나라와 이웃사랑을 힘쓰는교회</p> <p>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cj.church</p>	<p>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양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믿어 함께 할거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라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한글학교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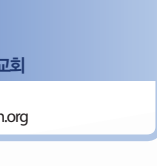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0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목)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cm.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1부 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대학부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치,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교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555
T.(818)383-5887 Tel: (323)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다니엘기도회 대장정 시작... "기도로 승리하자!"

첫 날, 10,967개 교회 한 마음으로 기도



2018 다니엘기도회 현장. ©오륜교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말씀에 목마른 가난한 심령들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여 하늘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편견과 다름을 버리고 예수 십자가 앞에 한 가족임을 고백하기를...”

1만 교회들이 열방과 함께 21일 동안 기도의 불을 이어가는 ‘다니엘기도회’의 첫 여정이 1일 오륜교회(담임 김은호 목사)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륜교회 주석하 목사는 “21일 동안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만왕의 왕 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울리자. 다니엘의 기도가 첫날부터 응답 받은 것처럼 모든 참여 교회 성도들이 첫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살아두신 은혜를 맛 보아 누리길 축복한다. 21일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축원한다”며 중보 기도회를 시작했다. 먼저 이 자리에 모인 교회와 성도들은 제주 지역과 현 지 6만 7천여 성도 및 400여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이어 찬양과 문화 공연 후 박명일 목사(제주국제순복음교회)의 인도 아래 ‘나라와 민족’,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각각의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첫째날 메시지는 출애굽기 17장 8~16절을 본문으로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오륜교회 김은호 담임목사가 전했다. 김 목사는 “우리는 교단과 교파가 다르다. 교회 안에서 직분도, 신앙의 경륜, 가진 은사, 나이도 너무나 다르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라며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 시스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

리스도”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전했다. 이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우게 되었는지 설명한 김 목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성인 가나안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자, 대적하는 세력이 아말렉이다. 그래서 성경은 아말렉에 대해 잔인할 정도로 진멸할 것을 말한다”며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끊임 없이 공격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단은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단의 밥은 뒤쳐진 사람이다. 아말렉도 행진에서 낙오한 사람을 공격했다”며 “믿음의 행진에서 뒤쳐지지 않길 바란다. 힘들어도 함께 가자”고 말했다.

특히 김 목사는 “모세가 세운 전략은 싸움과 기도”라고 강조하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한다. 즉 사람이 해야할 일은 마땅히 행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니엘기도회는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21일) 동안을 슬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2012년까지 오륜교회만의 기도회였다가 2013년부터 개방해 38개 교회가 함께했고, 2014년 264개, 2015년 1,076개, 2016년 3,202개로 해마다 참여 교회의 수가 늘었다. 지난해 마침내 1만 교회를 돌파한 뒤 올해는 11월 1일 오후 7시 기준 국내의 10,967개 교회가 함께 했다.

김신의 기자

탈북 여성 박예영 선교사 “북한에서 사상의 노예로 살았다”

성시월요조찬기도회서 특강

박예영 선교사가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순복음강남교회(담임목사 최명우)에서 열린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제413회 성시월요조찬기도회에서 ‘평화통일과 북한민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함경북도 김책시 출신으로 2002년 한국에 온 박 선교사는 현재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국내·외에서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박 선교사는 “우리 탈북자들은 탈북민 또는 탈북자들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 대신 고향을 북에 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북한민으로 부른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북한민’이라고 불렸으면 한다고 요청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의 통일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한국교회가 통일의 분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선교사는 “북한에서 사상의 노예로 살았다. 하루에 두 시간씩만 자면서 당과 수령을 위해서 6개월 동안 목장에서 일했다”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압록강을 건너지만 중국에서 3년을 살다가 잡혀서 중국 감옥에서 40일간 지내고 복송됐다. 신의주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풀려났다”며 이후 2002년 재탈북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된 박 선교사는 “교회 라인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갔고, 거기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 선교사님 댁에서 2개월 정도 지내기도 했다”며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한국에 못 보낸다고 해서 새벽기도를 비롯해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등 열심히 참

석했다. 그러다 새벽기도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했다”고 했다.

이후 김신대, 예수전도단 DTS훈련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전한 박 선교사는 “그때부터 나의 꿈을 다 내려놓았다. 주님이 제 인생의 비전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 특히 태백산 꼭대기에 텐트를 치고 중보기도사들과 40일 동안 한반도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며 “탈북 후 중국에서는 돈의 노예로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 저를 10년 동안 중보기도사역자로 쓰임 받게 하셨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시월요조찬기도회는 김기현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기), 정대준 장로(서울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가 인도했고,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가 축도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것”과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게 하며, 경제가 회복 성장하되 공생의 경제윤리가 세워질 것”을 간구했다. 이외 세계 선교 자원화, 성시화운동, 제2의 청교도운동, 부흥 등의선교 과제에 대한 기도 제목과 저출산, 복음적 평화, 통일, 한인 디아스포라, 경제, 서민, 복지, 등을 위한 사회·국가적 과제에 관한 기도제목을 두고 기도 했다. 다음 기도회는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장관, 5선 국회의원)가 ‘3.1운동과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다.

김신의 기자



장례식에 참석한 기독교인들이 슬퍼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캡처

‘테러 피해’ 이집트 콥트기독교 눈물의 장례식

참석자들 “영혼과 피를 다해 십자가 수호”

이집트 콥트기독교 공동체가 최근 민아 수도원 인근에서 발생한 테러로 7명의 교인들이 숨진 가운데 눈물의 장례식을 치렀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와 관련, 이집트 경찰은 “일부 용의자들이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민아 수도원의 마카리오스 사제는 장례식을 마친 후 “우리는 이집트 대통령을 비롯한 공식자들의 약속을 잊지 않을 것이다.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내무장관은 “용의자들을 추격하던 경찰은 그들이 은신해 있던 장소를 찾았으며, 거기서 권총과 IS 선전물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은 정부에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장례식에 참석한 한 유가족은 “이것이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무슬림들을 증오하길 원하는가?”라며 안타까워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여성은 “우리 아들은 최고였다. 그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됐다”며 슬퍼했다. 참석자들은 “우리의 영혼과 피를 다해 십자가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 기르기스 교회(Mar Girgis Church)의 라드 노지르 미트리(Rad Noseer Mitri) 사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용서가 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미트리 사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있다. 그들은 왜 이같은 일을 하는가? 우리는 누구에게도 나쁜 일을 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정직하게 교회와 나라를 섬겨왔다. 테러를 일으키거나 누군가 증오해 본 적이 없다. 다만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결혼 이외의 성관계는 갖지 않기로 결심했다”

영국 한 여대생의 고백



©Pixabay

영국의 21살 여대생이 혼전 성관계는 죄이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킬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3일(현지시간) 한 익명의 여성이 가디언지에 게재한 칼럼을 소개했다. 이 여성은 ‘나의 성생활’(My Life in Sex)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18세 때 결혼 이외의 성관계는 갖지 않기로 결심했다”면서 “이는 결혼 전 성관계가 더럽거나 순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이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체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궁극적으로 내가 죄를 지을 때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위이다.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 나는 깊은 평화로움을 느끼고, 잘 되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내가 유혹을 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난 성인이 아니다. 단지 밤에 밖에서 술에 취해 키스를 해 본 적이 있는 평범한 대학생일 뿐”이라고 했다.

그녀가 지적한 진짜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언제든 난 너랑 잘 수 있다’고 여기는 일부 이성 친구들의 태도였다고 한다.

그녀는 “한 번은 어떤 남성과 키스를 하다가 머리를 벽에 부딪힌 적이 있었다. 내

가 더 이상의 진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청바지 밑으로 내려오는 손을 계속 치워야 했던 적도 있었다”면서 “성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한 문화에 참여하고 싶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한 자격이 있다 느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비판하는 모든 페미니스트들의 견해를 읽어보았다. 내가 결혼 전 성관계를 갖게 된다면 아마도 고통스러울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친구들의 성적인 불화합성과 ‘결혼하기 전 경험해 봐라’는 태도는 우려스럽다. 내가 절대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통해 기쁨과 목적을 알게 되었고, 이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믿는다. 이 가운데는 나의 성생활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칼럼이 게재되자, 가디언지 독자들은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한 찬반의견을 쏟아내며 뜨거운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4년 실시된 영국성연구(British Sex Survey in 2014)에 따르면, 영국인들은 평균적으로 18살 때 성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대부분(92%)은 ‘일부일처가 관계에서 있어서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진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V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고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라(골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명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방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파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종교개혁예배 8:00pm
새벽예배 (월-목) 5:00am (다름날) 7:00am
화요일중보기도회 7:00pm 토요일찬양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r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침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받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교회(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 중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매일 4부 주일 오후 5:30pm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렐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포를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 초, 중, 고, 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넥스트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서신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8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목)

람창훈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령 영회 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어,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여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문화 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목)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고 되게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삼가미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어떻게 옥에 갇힌 당신이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이냐?”
제 18차 워싱턴주 주빌리 통일구국 연합기도회 개최



제 18 차 워싱턴주 주빌리 통일구국 연합기도회

지난 28일, 케네스 배 선교사(한국명 배준호) 초청 제 18 차 워싱턴주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에서 열렸다.

배 선교사는 “느헤미야의 사역” (느헤미야 1:4-5)이라는 설교제목과 함께 북한과 중국에서 이뤄진 선교사역과 억류과정, 감옥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다. 그는 북한에 억류되기 전, 중국 단둥에서 18명의 학생들과 함께 DTS 제자훈련학교를 시작했다. 그 가운데 15명은 중국인이었고 1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지 한 달 된 북한 여자였다.

그녀는 일 년 동안의 제자훈련을 마치자 북한으로 돌아가 꽃제비들과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겠다고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녀가 도화선이 되어 전세계 17개국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북한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배 선교사는 사역이 확장되던 가운데 자신이 6년 동안 사역한 모든 선교 자료와 편지가 들어있는 컴퓨터 외장하드가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게 발각되면서 북한 억류가 시작됐다. 3일 동안의 취조를 시작으로 하루 종일 서있는 고문도 당했다.

“북한에서 사역했던 수많은 정보가 외장하드에 담겨있었고, 무엇보다 같이 북한에 들어왔던 일행들이 북한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북한으로 함께 들어온 사역자들이 무사히 북한 땅을 빠져나갔고, 자에 대한 본격적인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배후가 누구인지 밝히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했고, 그러면 하나님 다음에는 누가 있는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배 선교사에게 허위로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당신은 주체사상을 파괴시키기 위한 공작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다. 결국 그는 평양에 있는 최고 재판소로 보내졌고, 거기서 국가 정보 위법죄로 15년 교화 형을 받았다.

미국 시민권자로서는 처음으로 교화형을 받은 배 선교사는 1주일에 6일 동안 농사를 짓는데, 삽질, 곡괭이질과 같은 일들을 비가오나 눈이오나 계절에 관계없이 해야만 했다. 매일 저녁 10시부터는 주체사상 교육을 받아야 했으며, 주일날은 하루 종일 주체사상을 TV로 봐야 했다.

교화수감 옥 안은 창문도 없고 벌레들이 득실거렸다. 그는 기본적인 영양소도 포함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며 고된 노동을 감당하다가 석 달 만에 몸무게가 27kg이 빠지며 영양실조에 빠지기도 했다.

“저를 구출하려고 미국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석방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로 “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고, 나를 지키던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당신에게서 처음 들어봤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동방의 성지였던 평양이 어떡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큰 슬픔이었습니다.”

배 선교사는 기도 가운데 말보다 행동으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음성을 따르며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로부터 “어떻게 옥에 갇힌 당신이 지키는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느냐”는 간증(?)을 듣기도 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수감생활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편지였다. “만 2년 동안의 수감 생활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100만 명 느헤미야 기도 서명운동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운동도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을 일으키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배 선교사는 교파를 초월한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모여 북한 동포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한글판 저서 “잊지 않았다”, 영어판 “Not Forgotten”을 출간해 북한의 종교와 자유 억압을 고발하고, 북한 인권과 복음화를 위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배 선교사의 사역 정보는 NGI(www.ngikorea.org)에서 자세히 얻을 수 있다.

플원 기자

첫돌 맞은 한샘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날 것”



한샘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한샘교회(이순환 목사)가 창립 1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 목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면서 “교회 창립때부터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제 걸음마를 막 때는 심정으로 교회의 본질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1주년을 맞은 한샘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의 기록함만이 존재하는 교회, 순교를 각오로 성전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자”고 권면했다.

이날 열린 창립 1주년 기념예배는 이순환 목사의 인도로 김병호 장로의 대표기도 후에 이순환 목사가 요 2:13-22절을 본문으로 ‘성전을 사모하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편 한샘교회는 화~토 오전 6시 새벽예배를 통해 마가복음 강해와 함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단 사이버 강좌를 열고 있다.

무대 뒤에서 섬긴 아름다운 영웅

성경에 나오는 갈렘은 “무대 뒤에 선 영웅”입니다. 갈렘은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때 무대 뒤에서 조용히 그를 섬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드라마의 조연보다 주연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합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드라마의 주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대에 설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무대 아래서, 무대 뒤에서 섬겨야 합니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누군가는 조명을 비추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촬영이 끝나면 뒷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주 동안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주인공으로 한 스토리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에 대해 말씀드리는 중, 갈렘에 대한 생각을 문득 문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여호수아와 갈렘 중에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는지 잘 모릅니다.

출애굽 초기에 등장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렘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은 갈렘의 충성된 마음과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렘 대신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여호수아는 일인자가 되었고 갈렘은 여전히 이인자로 남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 갈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갈렘은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알려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갈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동안에 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을까요? 갈렘은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갈렘은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땅을 분배할 때 비로소 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녕 갈렘은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갈렘은 무대 뒤에서 섬기는 영웅들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은 갈렘을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지금도 갈렘처럼 사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무대 뒤에서의 섬김은 은밀한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섬김을 귀히 여기십니다. 은밀한 기도, 은밀한 구제, 은밀한 섬김에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지켜보시며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마 6:4). 하나님은 고별료가 은밀히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보시고 상을 주셨습니다(행 10:4).

둘째, 하나님은 필요할 때 자신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갈렘이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에 섰을 때 자신을 감춘 것은 지도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 갈렘은 자신을 감춤으로 뒤에서 그와 동역했습니다.

바울이 역사의 무대에 섰을 때 바나바는 자신의 존재를 감추었습니

다. 그리함으로 바나바는 바울을 초대 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바나바의 사려 깊은 배려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자주 자신을 감추시는 것을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마 5:13).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감춤으로 맛을 내고, 자신을 감춤으로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요긴하게 사용하실 때 먼저 그가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가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일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건 헌신을 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갈렘은 그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질투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갈렘은 질투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경쟁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따라야 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질투를 극복한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마 11:11).

우리 교회는 갈렘처럼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갈렘에게 적합한 때에 큰 상을 주신 것처럼, 아름답게 섬기시는 성도님들에게 적합한 때에 큰 상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한다면...

병원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왜 흉부외과는 지원하는 의사가 많지 않을까요?”

질문을 받은 흉부외과 의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흉부외과 의사는 사망률이 95%가 넘는 수술도 해야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생각할 시간도 가지지 못한 채 맞이죠... 흉부외과 의사는 매순간 선택에 놓이죠. 수술을 해야할지 말지, 일단 수술을 하면 더 많은 선택을 해야하고, 그 선택에 환자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흉부외과에 지원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예상하고 준비를 해도 열기 전에 예상 할 수 없는 것이 심장입니다. 어떤 징후들은 꼭꼭 숨어 있습니다. 지리 처럼요. CT나 MRI가 놓치기도 하고, 때론 환자 본인이 그런 증상들을 숨길 때도 있죠. 그래서 흉부외과 수술실은 마치 전쟁터 같아요. 흉부외과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를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한다면 환자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거든요.”

저는 이 대사에서의 의사는 목사 같고, 흉부외과는 교회 같고, 그리고 아픈 심장은 아픈 성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다루는 자들이 목사입니다.

영적으로 사망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부터, 복음을 받아드리지 않는 확률이 95%가 되어도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목사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열어 보기 전에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심장이듯이,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열어 보기 전에는 걸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상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목사는 기본적으로 아픈 성도를 돌보는 공활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픈 성도를 보면, 새벽이라도 자동적으로 뛰어 나가는 착한 마음이 있는 자라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생각만큼 안전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잘못 보면 터지는 지뢰가 여기저기 예상치 않은 곳에서 터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어떤 경우든지, 지뢰를 밟아 터진 성도들을 치료하고 영적으로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포기하면, 더이상 이 세상에서는 아픔을 치료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주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말씀의 풀이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요긴한 존재입니다

1930년대 초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살롯이란 동네에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모르드게 헤가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인도하는 집회였기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소년이 조금 늦게 집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갈 틈을 찾지 못해 기웃거리고 있을 때 안내하는 봉사자(usher)가 두 소년을 맨 앞줄로 데려갔습니다. 비록 의자가 아닌 바닥이었지만 설교를 듣기에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두 소년 중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겠다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그날 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갔더라면, 기독교 역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밤 설교했던 모르드게



박성근 목사
남가주새누리교회

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빌리 그레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빌리 그레함을 앞자리로 안내했던 봉사자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흔히 기독교 역사가 유명한 영웅들에 의해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웅들 뒤에서 말없이 섬겼던 무명의 헌신자들에 의해 세워져 갑니다. 이

름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무수히 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역사의 새 페이지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릭 워렌이 말한 것처럼, “무명하다는 것이 쓸모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Anonymous doesn't mean unnecessary). 오히려 더 소중한 밑알처럼 사역의 열매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했습니다(고전 12:22).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이나 외적 비중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위대한 역사의 장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다고 실망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당신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살롬!

미스바
화요 여성 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520 S. LAFAYETTE PARK PL#200
LA CA 90057 (LA 비전교회)
문정란 목사 | 213.344.6313

반주자 모집

동부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캘리포니아 LA 동부에 위치한 동부사랑의교회(East Sarang Community Church)에서는 2대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본 교회는 미국 장로교(PCA)에 소속된 교회로 2007년 개척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잘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다음세대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 자격요건
 1. 정규신학대학원 졸업안 분(M.Div)
 2. 미국 장로교(PCA) 노회 가입이 가능한 분
 3. 5년 이상 full time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미국 또는 한국)
 4. 미국 체류 신분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2. 목사 안수 증명서
 3. 최종 신학교 졸업증명서
 4. 목회계획서(목회 비전과 계획)
 5. 자기 소개서(성정배경, 신앙간증, 소명, 목회경험, 사모 및 가족소개)
 6. 1년 이내의 설교 2편(DVD와 동영상 링크 주소)
 7. 3인의 목사 추천서(추천인이 싸인과 함께 escpc2@gmail.com로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마감

2018년 12월 2일(주일)까지 마감합니다.
- 제출 방법
 - 1.우편 제출처
동부사랑의교회 청빙위원회 / ESCC Pulpit Committee
주소: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 2.이 메일 제출처 (escpc2@gmail.com / 이 메일로 보낼 시 PDF 파일로 작성)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동부사랑의교회 (East Sarang Community Church)
주소: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전화: 909-590-3722(ESCC) web: www.eastsarang.org

캐나다광림교회(벤쿠버)에서 담임목사 청빙

- 자격요건
 1. 감리교단에서 인정한 대학졸업 후 신학대학원(M Div.) 졸업
 2. 이민 목회 또는 해외 선교사 경력 3년 이상
 3. 감리교 소속 정회원 5년급 이상
 4. 연령 만 55세 미만
 5. 교회법, 사회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1.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
 3. 목회 비전과 신앙간증서
 4.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5. 소속교단 재직증명
 6. 목사안수증
 7. 추천서(목회자) 2개
 8. 최초 6개월 이내 설교 2편 (동영상파일 or 음성파일)
- 제출처

서류 제출처:
15678 106A Ave Surrey, BC, V4N 1K4 청빙위원회 앞
Email: kmcsarang@gmail.com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5일(목)까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

Email: kmcsarang@gmail.com
Phone: 604-951-1414 / 604-813-5724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 732-4669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안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TOP MEDIA www.TopmediaUSA.com
 SIGN & PRINTING 323.265.0244

TRUCK & VAN WRAPS
 BANNER & SIGN
 PRINTING & COPY
 TRADE SHOW ITEMS

Promotion Items
 Stickers & Label
 Package Design
 T-shirt Print
 Printing & Copy
 Sign & Bannner
 Trade Show Items
 Van Warp
 Truck Warp
 Food Truck Warp

공적 영성 · 공공 신학?! “말씀은 넘쳐나는데 행함이 없다면...”

<한국초대교회 공공신학> 펴낸 류준영 목사

공적 책임 수행에 소홀,
개교회 중심주의에 문제 기인

그리스도의 몸인 공교회로서
사명 망각, 교회의 사유화 문제

한국 초기 선교사는 의사, 교사,
기술자

칭의와 성화 구분하면 안돼

오늘날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위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은 삶이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사회에 드러나는 교회의 영향력 감소 및 미미함을 말하고 있다.

최근 류준영 목사는 <한국초대교회 공공신학>을 펴내고, 한국교회의 위기의 원인은 공적 영역의 책임감 회피와 상실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사회적인 공적 책임 수행에는 소홀하면서, 이기심과 개교회 중심적인 존재 방식에만 익숙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저서에서 한국 교회를 가리켜 ‘말씀은 넘쳐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 따라서 말씀과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한 체질적 개선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요구 받고 있다고 말한다. 또 초기 한국 기독교 선교사의 공적 영성과 이에 영향을 받은 한국 초대교회를 통해 지금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류 목사는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을 마친 후 공공신학을 연구해 박사학위(D.Min.)를 받았다. 그는 토론토제일장로교회 전도사와 부목사, 그리고 성신장로교회(현 새찬양교회)에서 설교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있었다. 지금은 미국장로교(PCUSA) 소속으로 공적신학실천센터를 설립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저자 류준영 목사와 나누는 이야기.

-책을 저술하게 된 계기는.

전도사,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번아웃(Burnout)을 경험했다. 10년 전, 다시 학교에 가 지친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공공신학을 접하게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공공신학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소명의 자리로 회복시켜준 것을 경험했다. 그때

충현신학교교회 민중기 목사님이 풀러신학대 실천신학 논문 지도교수로 있었다. 그분이 나의 논문 지도를 하면서 내용이 너무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책으로 내게 되었다. 또 조의안 교수님이 부심이었는데 내용이 좋다는 의견을 주셔서 한국에 흥성사와 CLC 출판사에 논문 파일을 보냈다. 그 다음날 밤에 바로 CLC에서 출판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책을 통해 공공신학 실천센터 사역이 탄력을 받고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초대교회 공공신학
류준영 | CLC | 215쪽 | 10,000원

-공공신학이라는 말이 일반 성도들이 들었을 때 생소하다. 무슨 의미인가.

신학 자체가 공공신학이고, 교회 자체도 공적인 교회 모습을 띤다. 교회는 사교회가 아니라 공교회인 것이,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공적인 스토리로 시작한다. 출애굽 사건도 공적인 이스라엘 이야기이고,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이야기가 그렇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도 사적인 나라가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 나라이다. 한국이나 북한이나 아프리카 누구에게나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 신학의 핵심도 공교회이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사교회 개념으로 설명이 안된다. 그리스도의 몸인 공교회로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사유화/사사화 되었다. 개교회의 당회장과 당회가 각각 알아서 의사 결정을 하고, 공적인 책임 보다는 개교회적으로 교회 안에서 경영이 되다 보니 교회 관리자가 된 것 같다.

개인주의가 오늘날 현대사회에

고통을 안겨주지만, 개교회주의도 기독교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이웃과 이웃 교회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 모든 교회가 공적인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작동해나갈 때 세속화 시대에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책임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때야 비로소 교회가 세상에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날 교회가 말씀은 넘쳐나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실천과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불잡아왔던 정통 신앙만을 가지고 500년 종교개혁 시대를 버티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신앙과 같이 교회가 있으나 마나 한 힘 없는 곳이 되었다.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작동하면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성경을 보고자 하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자 한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말만으로는 안 된다. 말보다 강한 것이 글이고, 글보다 강한 것이 행함이다.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될 수 있다. 교회가 절박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다.

-이민교회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초대교회에는 공적 영성이 나타났었다. 초대교회가 작고 가난했지만 힘이 있었고, 사회적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사회를 주도해 나갔다. 그 2.6%의 크리스천들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 공적인 책임을 감당해나갔다.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공적 영성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기독교와 교회론 그리고 칭의론, 성화론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칭의와 성화가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하나로서 다시 봐야 한다. 그리고 창조론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론이 많이 왜곡되었다. 목회자들 사이에 교회론이 다시 읽혀지고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불신자, 불교신자, 이슬람 신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게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선교라고 한다면 이슬람 마음까지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안에서만 축제하는 모습이 많다. 교회가 왜곡된



류준영 목사

모습으로 존재하는 모습이 많다. 지역 사회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찾아가야 한다. 교회에 40년간 나온 장로가 주일 예배 이후에 교회 대문 앞에서,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을 향해, “저 사람은 무슬림, 저 사람은 불교신자, 불신자야!”라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했다. 잘못 가르친 책임이 현대 기독교에 있다.

-책에 언급한 초기 한국 선교사의 영향력과 공적 영성에 대해 말한다면.

네분의 선교사 공통점은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이 서방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알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올 때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니고 의사로, 교사로, 때로는 기술자로 건너와서 한국 사회에 필요를 채워주었다. 이들이 한국의 교육과 의료 문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한국 사회가 감동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또한 언더우드, 알렌, 헨리 허버트 이러한 분들이 총을 가지고 일본 폭도들로부터 고종을 지켜주었다. 현지인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을 알고 먼저 도와주었다. 지금의 전도사들도 똑같다고 본다. 선교지에서 필요한 일들을 충실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는다.

-칭의론과 성화론을 구분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자세히 말씀하신다면.

구원의 3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칭의, 두 번째가 성화, 세 번째가 영화로 나뉘었다. 그런데 신앙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죄 사함 이후에 구원을 받으면 끝났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30년 해도 성

장이 없는 것이다. 칭의, 성화는 둘로 나눠져 있는 각각의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로써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칭의를 통해서 성화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사도바울이 말하는 바울 신학이 그렇고,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맞닿아 있다.

지금까지 교회의 세속화로 인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성정이 없고, 지도자들이 말만 잘하고 삶이 없어서 교회에 열매가 없는 것이다. 성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구원,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길, 즉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있다. 교회에서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목회자도 그 틀 안에서 목회를 하려는 유혹이 있다. 교회가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성화의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잘할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서는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구분이 안된다. 목회자들이 교회의 본질인 기독교론과 교회론을 다시 공부하는 깊은 신학적인 성찰이 필요하고, 교인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자신 없으면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왜냐면 오히려 교인들을 죽이게 되기 때문이다.

-책에서 몇몇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공적 영성 사례를 말하고 있다. 소개를 부탁 드린다.

오아시스 교회는 50개의 커넥트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이 소그룹이 주말마다 만나 지역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한다. 경찰국에 가서 청소해주고, 홈리스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일용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14면에서 계속

목회학 박사 (한국어과정) 학생모집

미동부지역 전통있는 명문 신학대학교인 뉴욕 신학대학교(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에서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NYTS는 1900년 뉴욕에 설립된 ATS정회원 학교입니다.

등록마감일: 2018년 10월 31일

등록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continuing The Biblical Seminary in New York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Korean D. Min Program): 정원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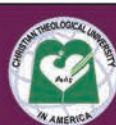
교수진 NYTS 본교 교수진이 직접 L.A에서 지도(영어강의는 통역이 제공)

강의 장소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강의실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1차수업: 2018년 12월 17일(월) - 12월 21일(금) | 40시간
강의#1 선지적 설교, 강의#2 논문작성법 | 교수: Rev. Dr. Keith A. Russell

2차수업: 2019년 6월 17일(월) - 6월 21일(금) | 40시간
3차수업: 2019년 12월 16일(월) - 12월 20일(금) | 40시간
4차수업: 2020년 6월 15일(월) - 6월 19일(금) | 40시간
5차수업: 2020년 12월 14일(월) - 12월 18일(금) | 40시간
6차수업: 2021년 5월 31일(월) - 6월 4일(금) | 40시간

학위수여식: 2021년 6월 5일 ※6차수업과 학위수여식은 뉴욕본교에서 진행※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 213-272-6031

‘고민하는’ 청년들이 묻고 ‘고민했던’ 이영표가 답하다

☞ **지난후에 이어서** 양화진문화원 원장 김성환의 목요강좌 ‘청년, 인파’의 두번째 강좌가 25일 한국기독교선교기념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영표 축구해설위원이 강사로 나섰다.

- 나보다 잘 하는 사람을 보고 싫어진 경우 어떻게 했나?

이영표 위원: “운동을 하다 보니 시기 질투의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시합을 보는데 내 점수보다 친구 점수가 궁금할 때 있지 않아요? 제 경쟁자가 못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을 보는 게 너무 한심했어요. 그런데 ‘내가 마라도나를 질투하나?’ ‘전설적 선수들을 질투하나?’ 이렇게 보니 질투하지 않고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선수를 질투할 것이 아니라면 동료를 질투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질투 대신 인정해주고 더 열심히 하자 생각했어요.”

- 비교하면서 절망한 적이 없었나?

이영표 위원: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운동하며 항상 느낀 것은 전 세계에 축구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 이거든요. 또 언제 한 번은 영국 기자에게 ‘이영표 선수는 어떻게 긴 시간 동안 단 한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날도 제 스스로는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지’라고 좌절했기 때문이에요. 매 순간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순간마다 다 못하고 다 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 그 일이 실패를 주지 않았단 사실이 다가왔죠.

실패와 성공은 반대말이 아니라 같은 의미라고, 실패가 성공이고 성



양화진문화원(원장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의 하반기 무료 목요강좌 두 번째 강좌 현장.

영국 기자의 질문 “어떻게 단 한번도 실패하지 않았나”에 큰 충격 받아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지” 생각하며 좌절해

최고의 선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본에 철저, 신앙도 기본에 철저해야

공이 실패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공시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나오기 위해선 웬만큼 성공하신 안됐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인데, 60분 중 55분동안 실패한 얘기만 하는 거죠. 치명적 실수를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성공에 대한 얘긴 5분뿐. 이름이 ‘성공시대’인데 왜 실패한 이야기만 하나 하는 의아함이 들었죠. 그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실패가 성공을 이야기한 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공한 자, 꿈을 이룬 자들의 특징은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실패를 겪은 자들이란 것예요. 청년들이 힘들고 좌절하고 지치고 한계에 만나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꿈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봐요.”

- 실패,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 안주하고 타협하려는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이영표 위원: “먼저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일관된 태도가 중요한 거 같아요. 제 경우를 보면 고통과 실패를 겪을 때 드디어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만족과 행복은 그냥 즐기고 끝나요. 즐길 때 제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고통과 실패를 통해 드디어 그 다음 단계의 반응을 하고, 저를 보면 성공했을 때 더 잘 노력하지 않았어요.”

- 선수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이 있다면.

이영표 위원: “월드컵 때는 항상 그 안에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경기 전에 한 마음이 되어 팀을 위해 기도하고 또 ‘크리스천 선수들이 조

금 더 희생하자’, ‘술선수범해서 팀이 더 잘되게 분위기를 좋게 하자’, ‘밀거름이 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매일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언제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하는 선수도 있었어요.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데 자신이 경기를 못 뛰니 ‘졌으면 좋겠다’,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마음이 자신을 너무 괴롭게 했다고, 막 울면서 자신이 한심스럽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런 일도 있었죠.”

- 축구 선수 생활을 그만 두고 오는 힘들을 어떻게 극복했나?

이영표 위원: “은퇴하고 운동을 못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좀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 생각보다 제 인생에 생각보다 축구가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

예요. 제 자아가, 긍정적 의미가 아닌 부정적 의미인데, 이기적인 자기애가 얼마나 강한지 느끼고 회개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걸 이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던 거 같아요. 이전엔 축구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꼈다면 축구가 사라진 후 아쉬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 속에서 하나하나 기쁨을 얻게 하셨어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좋은 날씨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시기에 이런 날씨를 허락하시는지’ 하면서요. 축구는 경기할 때만 재밌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은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느낄 수 있기에 이것이 훨씬 더 행복한 거 같아요.”

- 못 다한 이야기.

이영표 위원: “제가 운동을 하면서 우리 시대 최고의 모든 선수를 만나보니, 정말 최고의 선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축구의 기본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 기본은 초등학교 축구선수도 아는 축구의 기본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전 방언을 못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신앙인, 신앙의 기본은 어떤 엄청난 능력이나 기술에 있지 않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어떻게든 기회가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주변인에게 전하는 사람이예요.

이 신앙의 기본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많이 생각해요. 기본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쁨, 놀라운 곳으로 인도하실 거 같아요.” 김신의 기자

공적 영성 · 공공 신학?! “말씀은 넘쳐나는데 행함이 없다면...”

☞ **13번 〈공적 영성 · 공공 신학〉에 이어서**

또 유니온 레스큐 미션 사역이 있는데 사회적 약자가 교회를 찾아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교회가 그들을 찾아가 봉사를 펼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책임 수행의 의미가 있다.

리더십장교회는 50개의 비영리 단체를 끊임없이 도우면서, 작은 교회를 지향한다. 인종,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까 고민하는 교회이다. 대형교회로 가지 않겠다는 비전으로 계속해서 지교회들로 나누어 가고

있다. -교회와 성도들이 공적신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교회가 대사회적인 공적책임은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다. 가난의 문제, 마약의 문제, 환경적인 이슈에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지향해 가야 한다. 사회에 기독교 영향을 드러내야 한다.

크리스천들이 정치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대표를 뽑아서 당선시켜야 하고, 직간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 교회가 토론하고 방향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서 교회가 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공공의 선(common good)을 위해서 크리스천들이 일하는 것을 공공신학의 목표로 한다. 기독교인들이 그 영향력을 포기하지 말고 공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을 하고 그 동안 500년이 지났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침의의 단계에 머물러있다 보니까 더 이

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정통 신학은 정통 실천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알고 있는 신앙지식을 실천하지 못하면 신앙이 죽는다. 행함이 있는 목사, 장로, 성도가 되어야 교회에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깊은 성찰을 통해 작은 자리에서 실천해 가는 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성경말씀을 보고 삶을 통해서 사회에 작은 예수를 보여줘야 한다.

-끝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각 지역교회들을 찾아가 교제하며 말씀 사역과 공적신학 세미나를 하려고 한다. 새로 이사한 팜데일(Palmdale)을 중심으로 삶에서 이웃주민들에게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고 성육신적 사역이 되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지역 이슈가 무엇인지 사정을 알고 지역 사회를 도울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와 시민단체(NGO)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감으로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이다.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개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7628(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ue.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단기선교 최고 목표, 선교지 후원 아닌 ‘전도’ 여야”

의료선교사들 네트워크로 <현대 의료 선교학> 펴낸 심재두 선교사

의료선교 제 분야 인물들과 네트워크 통해 57명과 공동 저작 선교, 하드웨어에서 리서치 앤 디벨롭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의료선교, 아프리카로 가서 직접 경험을

아무래도 가장 필요한 곳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보건의료가 필요한 곳이고, 이슬람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지역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연락이 되는 사람들은 다 도심지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말라위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치과 의사가 처음 왔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는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줄테니 와 줄 수 없느냐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지만,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단기선교를 많이 가면 알려집니다.’

<현대 의료 선교학>에는 ‘의료선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저자만 57명이고, 이들 주 현재 의료 선교사만 45명이다. 얼마 전 KBS <인간극장>에 출연한 마다가스카르 이재훈 선교사, 전주 예수병원장을 지낸 김민철 한국인터넷 이사장, 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인 박상은 샘병원 대표원장 등 유명 인물들부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선교사들까지 망라했다.

책 자체도 ‘대작’이다. 크기는 B5보다 큰 199*266mm이고, 791쪽이라 무게가 거의 5cm이다. 양장본 책은 무게만 1.8kg에 달한다. 저자들은 선교 현장의 간증부터 시작해 선교지나 의료 선교의 역사, 전문 사역 소개나 보고 및 다양한 상황과 경험을 담았다. 그 자체로 거대한 선교 자료이다. 기획과 편집을 담당 한 심재두 선교사는 의료 선교학에 대한 관련 저서와 논문 등 참고자료들이 많지 않은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쉽지 않은 이 작업을 시작했다.

심재두 선교사는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책과 같은 모델이 없어 좌충우돌하며 선교해 왔던 일들이 이제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의료 선교사에 대한 자료들을 더 많이 찾고 그것들이 책으로 출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책 이후로 의료선교가 더욱 연합하고 협력하여 더 체계적이고 기획적이며 더 연구하고 개발(research & development)하여 관련 논문이 더욱 많아지고 노력과 투자를 통해 한국 의료 선교가 더 발전하고 부흥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심재두 선교사는 1980년 한국누가회(KCMF) 원년 멤버 중 하나로 간사와 대표간사,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1993년부터 원동교회 파송으로 알바니아에서 교회 개척과 의료 사역을 시작했고, 현재 의료선교협회 이사과 한국누가회 선교부 이사, 한국 로잔위원회 전문인사역위원장으로 봉사하면서 선교사 네트워크에 힘쓰고 있다. 다음은 심재두 선교사와의 인터뷰.

-출간 동기가 궁금합니다.

“책이 나오는데 1년 8개월 걸렸습니다(웃음). 우리나라는 선교나 의료선교가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큰 대회나 세미나를 열고 나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자료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화에 나가서 제가 배운 것은, 서구 선교사들은 철저히 ‘리서치 앤 디벨롭(Research & Develop)’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항상 일기를 쓰거나 기록을 남기고, 이를 모아 책을 펴냅니다.

제가 사역하는 알바니아 상황이 공산주의가 무너진 뒤 초반에 많이 알려진 것도 ‘Who cares Albania’라는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제는 선교나 의료선교가 소프트웨어, ‘리서치 앤 디벨롭’을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구 선교사들과 일하게 하시면서, 세계 그들의 사역 접근 방식을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2015년부터 계속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선교에 대한 종합 교과서 같은 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은 전유럽 교수(연세대)가 한 번 시도한 적이 있고, 저도 두 챕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의사 선교사들만 참여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료선교에는 ‘간호 선교사’들의 역할이 큼니다. 그리고 치과는 의사의 수가 적지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지를 가든, 치과는 1등 사역입니다. 남녀노소 환자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들로부터 환영받습니다. 제가 내과 의사인데 환자를 보면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나이나 병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는 진단이 쉽고 곧바로 처치가 가능합니다. 치과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내과 의사는 외과 의사와 연

결 부분이 적어 교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들끼리는 언어가 달라도 용어가 같기 때문에 금방 소통이 됩니다. 현지인 의사들과도 교감이 생겨서 협력하고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치과는 일종의 도제 시스템으로, 제자가 생길 수 있어 사역지에서도 열매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아 의료 선교를 종합할 필요성을 느끼고, 2015년부터 의료선교 여러 분야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몇 권을 먼저 출판하다 보니, 그분들이 제 사역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0~70명의 사역자들을 접촉해 저까지 총 57명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살아보니, 선교 현장에서 글 쓰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으니 다듬어 주겠다고 격려하면서 원고를 받았습니니다.”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작품이네요.

“또 하나의 의도는 이런 교과서 같은 서적이 하나 있어야, 이 책을 인용하고 해서 제2, 제3의 좋은 의료선교 서적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종합 교과서 같은 책을 근거로 계속 인용해 가면 의료선교 분야 전체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학회 같은 곳을 가 보면, 절대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토론하지 않습니다. 책에 없는 내용, 더 발전된 내용을 갖고 토론합니다. 앞으로 의료선교 세미나가 진행된다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보다 발전된 내용들이 논의될 것이고, 더 정밀한 ‘리서치 앤 디벨롭’도 나올 것입니다. 국가별 의료선교 전략이나 교과서도 나와야 합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을 묶어서 쓰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책 출간은 의료선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30쪽 내외의 자료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책이 나올 수 없지만, 여러 명이 합쳐서 내용을 묶으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료들을 묵하지 않고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자료나 글을 남기지 않고 사역만 열심히 하는 의료선교사들도 있는데, 그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격려와 자극의 의미도 있습니다. 책이 나오면 참여한 의료선교사들은 모두 공동 저자가 되고,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의 경력이 더



심재두 선교사는 “새로운 의료선교 부흥을 위해 현황을 이해 및 분석할 뿐 아니라, 모험과 용기가 필요하다”며 “잘 준비하여 축적하면 큰 선교 부흥을 견인할 귀한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늘어나는 ‘커리어 상승’ 효과도 있습니다.”

-의료선교를 꿈꾸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선교를 생각하면 막연할 수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희망하는 지역도 찾아보고 그곳 선교사와 교제할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 의료선교에 대한 동기 부여나 부르심이 많이 이뤄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헌신은 ‘듣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강의보다는 책이 훨씬 ‘인パクト’가 있습니다.

이전에 <선교 핸드북>을 펴낸 이유도 그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질문을 받는데, 질문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썼습니다. 70개 정도의 질문을 생각하고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을 넘어, 그분들과 더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반 목회자나 성도들이 읽을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선교에 대한 ‘고찰’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의료선교, 이슬람 관련 내용들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NGO와 의료선교’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NGO 전문가, 코이카(KOICA) 회장과 실행총무가 집필했습니다. 교회들이 NGO 사역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NGO 이야기가 나왔는데, 각 교회가 NGO를 별도 창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한국교회에는 개교회·개교단 주의가 있지만, 최근에는 파트너십에 대한 강조 또한 많고 관련 세미나도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들도 세계 선교를 어느 한 교회나 조직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연합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연합을 잘 엮어줄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해외에는 그런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로잔위원회 같은 조직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막상 NGO를 시작하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합해야 합니다.

<현대 의료 선교학>을 완성해 여유가 좀 생겼는데, ‘www.단기의료선교.org’를 만들고자 합니다. 7천인 의료선교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www.7000m.org)도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에서 한 선교사가 사용하고 남은 약품을 소개하면, 한 시간도 안 돼 필요한 분들의 연락이 들어옵니다. 장기 의료선교뿐 아니라, 단기 의료선교에 대한 자료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단기 의료선교팀이 방문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꼭 필요한데 아직 덜 가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요즘은 캄보디아를 가장 많이 찾습니다. 예전에는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2~3위이고, 베트남, 라오스, 태국도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곳들을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이대웅 기자
☞ 다음 호에 이어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북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openstewardship.com

“함께해요!
행복나눔”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지원단체 모집

Open Stewardship Program

2018년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
수혜단체 접수를 시작합니다!

한인사회와 주변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현 프로그램을 활성화 및 확장하기 위해 [Open Stewardship Foundation]에서 드리는 지원금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미주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오픈청지기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및 지원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접수기간 : 2018년 10월 1일 ~ 11월 30일

openstewardship.com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213.593.4885

100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7